

AHN CHANG HONG

한국·에콰도르 수교 60주년 기념
안창홍 특별초대전 세미나

Roundtable Seminar In Conjunction with
〈Ahn Chang-Hong Special Exhibition〉



한국·에콰도르 수교 60주년 기념
안창홍 특별초대전 세미나

**Roundtable Seminar In Conjunction with
〈Ahn Chang-Hong Special Exhibition〉**

at the Guayasamín Foundation in Celebration of
the 60th Anniversary of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Korea and Ecuador

안창홍과 오스왈도 과야사민의 작품 세계를 통해 본
한국과 에콰도르의 시대정신

The Spirit of the Times of Ecuador and Korea
through the Artwork of Ahn Chang-Hong & Oswaldo Guayasamín

목차

- 환영사
- 5 **이명옥**
사비나미술관 관장
- 좌장
- 8 **문범강**
조지타운대학교 회화과 교수, 화가
- 작가 안창홍에게 묻다
- 패널리스트
- 16 **파블로 과야사민**
과야사민재단 회장
- 18 **고충환**
미술평론가
- 19 **문범강**
조지타운대학교 회화과 교수, 화가
- 20 **화가 문범강이 본 화가 안창홍의 작품세계**
문범강
- 30 **안창홍, 이름도 없는 존재들에 바치는 진혼곡 혹은 오마주**
고충환
- 36 **오스왈도 과야사민 작품에 담긴 강렬한 미학, 과야사민 미술관에서의 안창홍 특별초대전의 의미**
파블로 과야사민

CONTENTS

- WELCOMING ADDRESS
- 6 **Lee Myung-Ok**
Director of Savina Museum of Contemporary Art
- SESSION CHAIR
- 42 **BG Muhn**
Artist and Professor at Georgetown University
- ARTIST TALK: Q&A with Artist Ahn Chang-Hong
- PANELISTS
- 48 **Pablo David Guayasamín Monteverde**
President of Guayasamín Foundation
- 50 **Kho Chung-Hwan**
Art Critic
- 51 **BG Muhn**
Artist and Professor at Georgetown University
- 52 **The Art of Ahn Chang-Hong, Through the Lens of Artist BG Muhn**
BG Muhn
- 64 **Ahn Chang-Hong, As a Requiem or Homage to the Unnamed**
Kho Chung-Hwan
- 70 **The Powerful Aesthetics Embodied in the Work of Oswaldo Guayasamín and the Significance of the Exhibition of Ahn Chang-Hong in the Guayasamín Museum.**
Pablo David Guayasamín Monteverde

환영사

사비나미술관이 에콰도르 최고의 미술관 중 하나로 평가받는 과야사민미술관과 협력하여 《한국·에콰도르 수교 60주년 기념 안창홍 특별초대전》을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본 전시는 지난해(2020) 국내 최초로 사비나미술관에서 성공적으로 유치했던 에콰도르 국민화가 《오스왈도 과야사민 특별기획전》의 답방 형식으로 성사된 전시로 한국과 에콰도르를 대표하는 두 미술관의 첫 번째 협력 전시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큼니다. 아울러 에콰도르 국가유산으로 선정된 오스왈도 과야사민(Oswaldo Guayasamín, 1919~1999)의 대표작품이 상설 전시된 과야사민미술관과 인류의 예배당에서 한국 작가의 작품이 처음으로 에콰도르 국민과 만나는 뜻깊은 예술행사이기도 합니다. 특히 스페인의 거장 프란시스코 고야(Francisco Goya, 1746~1828)의 작품이 인류의 예배당에서 전시된 이후 최초로 타국 작가의 작품이 소개된다는 점에서 더욱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안창홍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지난해 전 세계를 강타한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극심한 불안과 공포, 자본주의 사회의 생산과 소유 개념, 인간의 삶을 지배하는 원초적인 검은 욕망의 본질을 날카롭게 파헤치는 60점의 작품(유화 20, 입체 17, 시멘트 부조 23)을 선보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디지털 펜으로 그린 디지털 펜화 80점 등 새로운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실험성이 강한 작품들을 함께 소개하며 디지털 매체의 미학적·기술적 융합 및 확장성을 탐색합니다. 안창홍은 평생 정치 권력, 자본 권력, 사회 권력, 문화 권력, 지식 권력 등 ‘권력’이란 괴물의 속성을 예리하게 꿰뚫어 보았던 냉정한 관찰자이자 권력이 지배하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저항한 투철한 비판자였습니다. 인간 내면의 탐욕과 야만성을 파헤치며 권력이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사회를 꿈꾸었던 안창홍과 인간 폭력성의 희생양인 약자의 편에 서서 인간성의 결함을 고발한 오스왈도 과야사민의 예술관은 그런 의미에서 분명 일치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전시와 세미나를 통해 관객들이 한국과 에콰도르의 시대정신을 반영한 두 거장의 작품을 비교 감상하는 기회를 가지며 권력을 향한 욕망의 질주를 막는 길은 타인을 향한 연민과 공감, 이타심이라는 점을 인식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향후 한국과 에콰도르 양국 간 더욱 활성화된 문화교류의 기반을 다지는 초석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2021년 11월
사비나미술관장 이명옥

WELCOMING ADDRESS

It is my great pleasure to host the “Ahn Chang-Hong Special Exhibition” celebrating the 60th anniversary of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Ecuador and Korea, in collaboration with Guayasamín Museum, which is regarded as one of the best art museums in Ecuador. This exhibition is realized in response to the special exhibition of “National Painter of Ecuador Oswaldo Guayasamín”, which took place at Savina Museum in 2020.

As the first collaborative exhibition between two art museums that represent Korea and Ecuador, “Ahn Chang-Hong Special Exhibition” holds much special significance in its realization. More than anything, this exhibition is the first Korean artist’s exhibition to be presented at both the Guayasamín Museum and the Chapel of Man: places renowned for their permanent exhibition of a national heritage of Ecuador, Oswaldo Guayasamín’s works. Moreover, the “Ahn Chang-Hong Special Exhibition” is remarkable in the sense that no other foreign artist, other than Francisco Goya(1746~1828), has ever been able to exhibit at the Chapel of Man, until this very exhibition.

In this exhibition, Ahn presents 60 works including 20 paintings, 17 sculptures, and 23 cement reliefs that share his sharp intuition into the extreme anxiety and fear of modern people living in the digital

era, a concept of production and ownership in a capitalist society, and the dark instinctive desire which dominates human life. By including the experimental works of 80 digital drawings made on a smartphone, Ahn explores the coalescence of aesthetics and technology, and further expands upon many genres. Throughout his life, Ahn has been a rational observer who looks right through the properties of a monster called ‘power,’ which exists within politics, capital, society, culture, and knowledge. He has been a staunch critic who has resisted those powers without compromising with the world. While exploring the greed and savagery within human beings, Ahn has been dreaming of a new society where power does not exist. And such attitude coincides with the artistic viewpoints of Oswaldo Guayasamín, who has stood on the side of the victims of human violence and denounced the flaws of humanity.

I hope that this exhibition and seminar will be an opportunity for the audience to appreciate the works of two masters who have embodied the spirit of the times in Korea and Ecuador. This experience will allow all to realize that the race of desire for power is only stoppable through compassion, empathy, and altruism towards others. In addition, I hope it will serve as the steppingstone for future cultural exchanges between Ecuador and Korea.

Lee Myung-Ok, Director of Savina Museum of Contemporary Art
November, 2021

좌장

문범강

조지타운대학교 회화과 교수, 화가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세미나 진행을 맡게 된 문범강이라고 합니다. 저는 워싱턴D.C.의 조지타운대학교에서 30년 이상을 재직해온 미술학과 교수이자, 예술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콰도르 수교 60주년을 기념해 양국 정부와 두 미술관의 협력으로 만들어진 이 중요한 행사에 참여하게 된 것을 무척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에콰도르에서 전시되는 《안창홍 특별초대전》은 1년 전 한국 사비나미술관에서 개최되었던 《에콰도르 국민화가 오스왈도 과야사민 특별기획전》과 같은 문화 교류의 일환으로 열리는 행사입니다.



2020 사비나미술관 <에콰도르 국민화가 오스왈도 과야사민 특별기획전> 전경

한국의 문화체육관광부 주최로 열린 ‘2021 국제교류전시 지원사업’ 공모의 엄격한 경쟁심사를 통과하여 안창홍 작가가 이번 교류전의 작가로 선정된 점을 주목하고 싶습니다. 이번 안창홍 작가의 전시를 개최하기 위해 한국의 사비나미술관은 큰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키토의 과야사민재단, 주 에콰도르 대한민국 대사관, 또 오늘 세미나를 위해 대형스크린을 제공해주신 삼성전자 에콰도르 지사 등 많은 기관 단체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양국 간 교류를 구축하고 강화할 수 있는 다른 많은 방법이 있었음에도, 양국 간의 유대를 공고히 하고 기념하기 위해 예술을 선택하였다는 사실은 인상적입니다.

예술을 화두로 선택한 것은 양국이 예술과 예술가의 가치 있는 발언에 대해 높은 경외심을 갖고 있음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에콰도르에서도 매우 중요한 문화공간으로 인정받는 과야사민미술관과 인류의 예배당에서 열리는 《안창홍 특별초대전》은 그야말로 문화적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콰도르의 가장 훌륭하고 의미 있는 작품 중 하나로 꼽히는, 물론, 오스왈도 과야사민의 작품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에콰도르의 화가이자 조각가인 오스왈도

과야사민은 남미 대부분 지역에서 볼 수 있는 정치적 억압, 인종차별, 빈곤, 계급 분할을 강렬하게 담아낸 작품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대부분의 과야사민 작품에서 '전쟁의 잔혹함', '모성애', '가난하고 억압받는 사람들의 곤경', 이 세 가지 주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는 국제적으로도 인정받은 인간과 사회적 불평등을 다루는 '팬 아메리칸 아트'를 창조했습니다. 과야사민은 사회의 진실과 그의 주변의 불의함을 담은 상징을 그렸습니다. 모두 그러한 주제에 중점을 두고 인간의 고통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그는 에콰도르의 문화적 영웅이자 가장 중요한 예술가로서 기억되고 있습니다. 과야사민 작업의 핵심은 결코 훼손되지 않고 지켜져야만 하는 인간의 숭고함을 향한 울부짖음을 격렬한 형태로 표현한 것입니다.



절규 연작, 캔버스에 유채, 각 130×89cm, 105×75cm, 1983



어머니와 아이, 캔버스에 유채, 110×110cm, 1989

과야사민이 작품을 통해 표현한 이 고귀한 인간성은 오늘날 이곳 과야사민미술관과 인류의 예배당에 살아 숨 쉬고 있습니다. 한국 작가 안창홍의 전시가 과야사민의 작품과 같은 전시실에서 전시되고, 특히 그의 작품이 오스왈도 과야사민의 정신을 상징하는 '영원한 불꽃' 옆에 전시되고 있다는 점은 특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인권과 평화를 위한 '영원한 불꽃' 옆에 전시된 눈 먼 자들



과야사민미술관



인류의 예배당

더구나 인류의 예배당은 지금까지 해외 작가로는 단 한 작가의 작품만을 선보였던 곳입니다. 바로 18~19세기 거장인 프란시스코 고야가 그 작가입니다. 2009년에 고야의 작품을 선보인 이래로 12년이 지난 오늘날, 고야를 제외하고는 유일하게, 해외 작가인 안창홍이 전시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역사적 사실은 안창홍의 전시가 진정한 문화적 현상이라는 점을 더욱 공고히 합니다. 저는 오스왈도 과야사민과 안창홍의 작품에 표출된 시대정신을 돌아보는 이번 특별전과 세미나가 한국과 에콰도르뿐만 아니라 한국과 중남미 전체를 잇는 문화적 가교역할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프란시스코 고야, 1808 5월 3일, 캔버스에 유채, 266.2×345.2cm, 1814

세미나 사진

SEMINAR IMAGES



한국 · 에콰도르 수교 60주년 기념
안창홍 특별초대전 세미나

작가 안창홍에게 묻다

- * 패널리스트
파블로 과야사민 과야사민재단 회장
고충환 미술평론가
문범강 조지타운대학교 회화과 교수, 화가

1. 작가 안창홍에게 묻다 - 파블로 과야사민

파블로 과야사민 : <눈 먼 자들> 작품에 대한 영감을 어디서 받으셨는지요. 작품 제작의 모티프는 무엇인지요? 제가 생각하기엔 오스왈도 과야사민이 20세기의 고통과 폭력에 대한 아픔과 슬픔을 표현한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보입니다.



<안창홍 특별초대전> 눈 먼 자들 전시 전경, 인류의 예배당, 2021

안창홍 :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작품을 잘 보신 것 같습니다. 제 작품은 국가 대 국가, 계층과 계층 간에서 일어나고 있는, 독점 자본주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간 대 인간의 폭력에 대한, 황폐해져 가는 인간 심성에 대한 것들에 영감을 받고 입체로 만든 그 위에다 색을 다시 덧칠하면서 사람의 심리적인 문제들을 표현하는 작품입니다. 이번에 발표한 <눈 먼 자들>은 그런 내용의 작품들입니다.

저는 사람의 얼굴에 관심이 많고 얼굴을 통해 지금까지 많은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49인의 명상>, <가족사진> 연작, <가면들> 그리고 <이름도 없는> 등, 작품을 그리더라도 얼굴과 눈에 집중해서 그렸습니다. 마음의 창인 눈을 감기거나 후벼파듯이 아예 없애버리므로 시대적 상처와 황폐해져 가는 인간의 내면과 폭력성을 이야기하려고 한 것이며, <눈 먼 자들>도 그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49인의 명상,
혼합 매체, 109.5×75cm, 2004



가족사진,
캔버스에 유채, 30.3×162.2cm, 1980



가면들,
FRP에 혼합 매체, 146×86×44cm, 2017

2014년 4월 16일 오전 8시 50분, 세월호를 타고 수학여행을 떠나던 떠나던 325명의 어린 학생들이 진도 앞바다에서 영원히 수장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이보다 더한 비극적인 사건이 또 있겠습니까. 어떠한 이유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그 가슴 아픈 사연은 돈과 탐욕에 찌든 어른들이 저지른 폭력적인 만행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앞만 보고 달려온 욕망과 탐욕의 전차, 황금만능이라는 괴물이 만들어낸 결과물이 아니겠습니까. 눈을 부릅뜨고 있어도 볼 수 없는 자들, 황금을 향한 시선 외에는 생각하려고도 보려고도 하지 않는 탐욕에 매몰된 자들의 굴절된 눈, 나는 그런 자들의 일그러진 형상들을 만들고 싶었고 그 결과물이 <눈 먼 자들>로 표현된 것입니다.

2. 작가 안창홍에게 묻다 - 고충환

고충환 : 안창홍 작가의 작품에는 항상 시대적인 그리고 역사적인 주제 의식을 함축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작과 관련해서 작가는 앞으로 당분간은 유행도시라는 주제를 다루게 될 것이고, <유행패션>을 그 시작이라고 하셨습니다. 유행도시라는 주제가 갖는 의미, 그리고 그런 형식에 대해 생각하시는 부분을 듣고 싶습니다.



인간이후(유행패션의 모티브), 종이위에 오려붙이기, 유화물감, 95×182.5cm, 1979

안창홍 : 인류가 쌓은 문명의 탑이 궁극에 가서는 우리에게 득이 될지 독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본이 자본을 낳는 황금만능, 독점 자본주의는 크게는 국가 대 국가로, 계층과 계층, 인간과 인간 사이의 깊은 골을 파고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의 수직 종속의 사회를 만듭니다. 저는 이 계급사회의 극명한 상징 중 하나인 패션에 주목했습니다.

문명의 꽃이자 계급사회의 끝판왕, 자기 과시와 부의 상징인 패션, 계층 간의 차별화가 시각적으로 가장 잘 드러나 있는 자본주의의 상징물이자 인간 욕망의 정점에 서 있는 패션의 세계, 그러면서도 뿌리칠 수 없는 매혹적인 이율배반의 허영과 사치 덩어리. 저는 도시의 가장 변화한 거리의 휘황찬란한 불빛의 패션 1번가를 거닐면서 영혼들이 다 빠져나간 텅 빈 옷들만이 거리를 배회하는, 환각이기도 하고 실제이기도 한, 이 기이한 풍경을 통해, 우리가 쌓아 올린 바벨탑에 대해, 디스토피아에 대해, 절망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 싶었습니다.

3. 작가 안창홍에게 묻다 - 문범강

문범강 : 안창홍 작가는 이미 한국에서 작가의 입지를 구축했고, 이미 세계적인 작가로서 발돋움을 하는 시점에 와있습니다. 오늘 질문은 젊은 시절 대학 교육을 거부한 채 홀로 작업을 해왔는데, 그것이 대학교육을 받은 작가들의 작품과 어떻게 다르게 본인의 작업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시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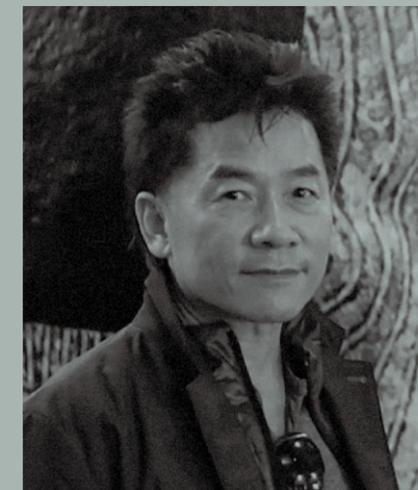
안창홍 : 제가 화가로 성장하는 데는 제도권 교육에 대한 거부가 결과론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우선은 그 당시 진학의 흥망성쇠를 쥐고 있는 대한민국의 미술교육은 암기식이었습니다. 그리기 방식인 석고 데생과 정물화 그리기, 그 황당하고 끔찍한 세뇌 교육을 사생결단으로 습득해야만 하고 입학 후에도 다시 그것을 지우기 위한 지난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러한 것에서 벗어났다는 것만 해도 나로서는 굉장한 행운이었습니다.

화가의 길은 기술을 습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의 것을 슬쩍 도용해서 자기 것인 것처럼 되는 것도 아니지요. 지식이 필요하다면 서점에 가서 구하면 될 것이고, 지혜가 필요하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낚아 올리면 될 일입니다. 물론 학연과 지연 권위주의적인 미술관이 간혹 저를 힘들게도 했지만, 가치 있는 삶 중에 시련이 없는 삶이 어디 있을까요? 어느 누구도 아닌 내가 스스로 선택한 나만의 삶이니 두뼉두뼉 화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지요.

저는 제도권 교육을 받은 자의 작품과 나의 작품을 비교해서 연구해 본 적은 없습니다. 제도권 교육의 권위주의적인 벽을 뚫고 자유롭고 바람직한 작업을 이뤄내는 작가가 눈에 띄는 때는 무한한 갈채를 보냈습니다. 우리들의 삶이 헤아릴 수 없이 다양한 형태이듯이 예술의 형태 또한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도권 교육을 받은 자는 제도권 교육을 받은 자 대로, 그것을 거부한 자는 그것을 거부한 자 대로 자기에게 주어진 삶이 있는 것이죠.

한국 · 에콰도르 수교 60주년 기념
안창홍 특별초대전 세미나

화가 문범강이 본
화가 안창홍의 작품세계



문범강
조지타운대학교 회화과 교수, 화가

미국에서 미술을 시작했고, 주로 미국에서 작품활동을 하고 있던 제가 화가 안창홍을 만난 것은 서울의 아라리오 갤러리에서였습니다. 마침 《화가의 심장》이라는 그의 개인전이 한창 열기를 뽐고 있었던 2019년 6월 9일이었죠. 저는 물론 화가 안창홍을 만나기 전부터 그의 작품을 미디어를 통해서 종종 마주했기에 그가 어떤 작가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2019년 여름 처음 만났지만 이미 우리는 작품을 통해서 서로를 알고 있는 터였습니다.



서울 아라리오 갤러리, 안창홍 개인전 〈화가의 심장〉

안창홍의 작품 세계는 상당히 넓고 또 깊습니다. 치열하게 파고 들어간 세월이 벌써 50년이 넘습니다. 70년대 초기 작품부터 80년대 후반까지 약 20여 년에 걸쳐 펼쳐져 온 작품의 경향을 보면 첫째, 표현 방식이 아주 자유롭고 상상력의 확장, 기괴한 해학과 살아있는 작가의 눈이 번뜩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심연속으로, 캔버스에 유채, 54.5×39cm, 19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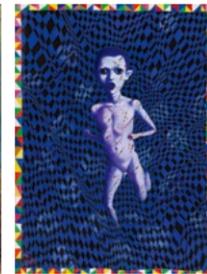
병실, 캔버스에 유채, 80.3×100cm, 1976



매춘, 종이에 아크릴, 35×23cm, 19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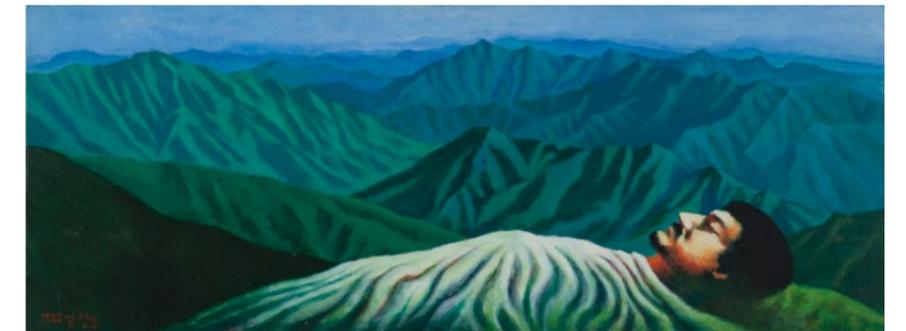
아버지와 아들, 종이에 색연필, 잉크, 79.5×109.5cm, 1986



끝없는 탈출 2, 종이에 아크릴, 109.5×76.5cm, 1989

안창홍은 대상과 주제에 대한 포착이 야생적이고 상상력이 투쟁적입니다. 상상력이 투쟁적이란 말은 작가가 몸담고 있는 시대 상황에 작가의 저항과 투쟁의 정신이 깃들어 있다는 말이죠. 시대 상황의 반영과 이에 대한 작가의 투쟁 정신은 상당한 위트와 신랄한 풍자를 담고 있습니다. 70년대와 80년대 그의 작품의 저변은 야생의 생명력으로 상당히 거칠게 꿈틀대지만 이미 80년 초부터 작품은 시대상을 작가의 내면으로 끌어안고 순치시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작가가 시대상을 순치시킨다. 즉, 시대상을 내면으로 길들인다는 말은 작가로서의 성숙도와 깊이를 더해 간다는 말과 상통합니다.

1980년대를 마감하는 시점에 안창홍은 예지적 작품을 한 점 내놓습니다. 바로 〈거인의 잠〉이라는 작품을 내놓게 되는데, 작가 자신의 미래를 예지한 작품이라고 봅니다. 정신계가 맑은 사람은 미래의 영상을 미리 볼 수가 있는데 그도 그런 예지 능력을 지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자신이 미술계에서 독자적인 길을 개척하며 의미심장한 작품을 창작하는 거목이 될 거란 예감을 작품을 통해서 꿈을 꾸고 있었다고 보입니다.



거인의 잠, 캔버스에 아크릴, 32×93cm, 1989

1) 무례함을 지닌 은밀한 생명의 설계자

이 소제목은 안창홍의 작품에는 ‘불편한 생경’이 엄숙을 품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생경은 살아 있는 어색함과 불편함이죠. 관람자가 대하는 그의 작품 속의 대상은 결코 따뜻한 포용으로 관람자를 반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이 어색한 생경이 외면의 대상으로 떠밀쳐지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알 수 없는 마력의 포스를 내뿜고 있죠. 자석처럼 끌어당기는 생경한 매력에 그 이미지는 관람자의 뇌리에서 쉽게 떨어져 나가지 않고 맴돌게 됩니다. 그 작품과 한번 마주치면 지워지지 않고 잔상으로 지속되는 이 생경함은 안창홍이 심어놓은 악동의 코드라고 봅니다.

그는 이 어색함 속에 생의 슬픔이라는 ‘코드’를 심어 놓았습니다. 생의 슬픔이

깊게 박혀있기에 대상은 생경이라는 외피를 입고 나타나지만 생의 슬픔은 살아있는 생명체로 그의 작품 깊은 곳에서 꿈틀대고 있습니다. 안창홍의 작품이 관람자의 의식을 강타하는 이유는 바로 이 슬픈 생명체가 주도하는 생의 근원에 대한 작가의 내적 탐구가 집요하기 때문입니다. 생의 슬픔에 대한 천착과 작가의 집요함이 전이되어 관람자는 전류를 느끼게 되는 것이지요.

안창홍의 회화 작업에서는 ‘노골적 성기의 노출’, ‘도발적 회화 속 드라이한 성적 유발’, ‘시장, 동네, 술집에서 만날 수 있는 인간상의 적나라한 현상의 재현’, ‘개의 교접’, 사진 작업에서는 ‘훼손된 인간 모습’이 등장하곤 하죠. 모두가 예술로 표현하기에는 꺾끄러운 대상입니다. 작품화하기에는 너무 직화적 민망함과 관객이 다가가기에는 어딘지 거리낌이 서성이는 주제입니다. 세상에 흩어져 있는 모든 현상이 작가의 표현 대상이 될 수 있죠. 안창홍은 무수한 타깃 속에서 생경한 현상을 향해 총을 겨누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진정 타격하고자 하는 대상은 생경 자체가 아니라 생경의 이면에 숨어있는 ‘생의 슬픔’입니다. 생명체의 슬픔은 단지 생명체의 탄생과 죽음 사이에 겪는 한정적 성의 감성대가 아닙니다. 탄생과 죽음이 연속되는 커다란 순환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공존하는 영속적 시간에 대한 슬픔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부,
캔버스에 아크릴,
194×130cm, 2010



문신한 남자,
캔버스에 아크릴,
194×114cm, 2010



술과 혀,
캔버스에 아크릴,
91×65cm, 1998



순돌이의 바캉스,
캔버스에 아크릴,
61×95cm, 1995



부서진 얼굴,
캔버스에 아크릴,
310×210cm, 2008

안창홍은 ‘영속적 시간의 슬픔을 길어 올리는 예술가’입니다. 이 ‘영속적 시간’은 생명체의 생과 사의 순환 속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희열과 아픈 흔적을 감싸 안고 흐르고 있죠. 생명체는 특히 인간은 향유하는 환희보다는 더 많은 아픔의 기억을 지닌 채 순간의 안도감으로 생을 영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생명의 아픈 흔적을 내색하지 않은 채 도도한 강물처럼 흘러가는 영구한 시간에 타깃을 맞춰 시간 속에 내재한 생의 아픔을 끊임없이 채굴해 내는 예술가가 바로 안창홍입니다.

이런 아픔과 비애를 생경으로 포장하여 내보내기에 관객은 불편하죠. 안창홍의 작품은 바로 이 불편한 느낌 속에 존재합니다. 그는 그 예술을 통해 안락함을 제공하는데 대단히 인색한 작가입니다. 이 고집스러운 불편함이 안창홍 예술을 스멀거리는 생명체로 존재하게 만드는 역설을 불러오고 있죠. 그 예술을 이 순간

그리고 미래에도 숨 쉬는 생명체로 살아남게 만드는 핵심 에너지는 바로 ‘불편의 미학’입니다. 미술사적으로 이런 불편의 미학을 작품을 통해서 표출한 작가의 수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안창홍의 작품 전반에 걸쳐 내재되어 있는 불편의 미학은 그가 단순히 저항 의식을 지닌 예술가이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생명의 근원지를 건드리고 있으므로 불편의 미학이 그 속에서 움트고 있다고 봅니다.

생명의 근원에는 희열, 아픔, 처절함, 회한, 번뇌가 동시다발적으로 들끓고 있죠.

그 이유는 그가 뽑아낸 생명의 근원이 희열이 아닌 아픔과 처절함을 대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삶의 아픔과 처절함은 모두가 느끼고는 있지만 표현하고 싶지 않은 생의 진실이기도 하죠. 그러기에 안창홍의 작품은 일견 무겁고 어둡지만, 생의 본연을 드러내기에 그의 작품은 엄숙한 장엄을 타고 흐르고 있습니다.

생명이 비켜 갈 수 없는 비애의 생사를 안창홍은 회화, 콜라주, 사진, 프린트, 그리고 입체로 표출하고 있죠. 이 표출의 과정에 안창홍만의 특화된 감성과 터치로 현대 한국 미술사에서 이미 그의 작품 세계는 독자적인 장을 만들었고 제가 보기엔 현대 세계 미술의 현장에서도 그 작품의 위상은 널리 알려질 것으로 봅니다.



◀ **위험한 놀이,** 종이에 색연필, 79.5×109.5cm, 1983
▶ **부서진 얼굴,** 에폭시 위에 포토 콜라주, 109.5×52cm, 2006



유령패션, 디지털 펜화, 디지털 프린트, 각 100×80.3cm, 2021



가면, FRP에 혼합매체, 각 146×86×44cm, 2016-2018

결론적으로, 이런 작업을 하는 자, 즉 ‘생명에 내재된 슬픔을 예술로써 치환시키는 그를 저는 깊고 은밀하고 무례한 생명의 설계자’라고 부릅니다. 무례하다는 말은 일반 관람자에게 예의나 상식을 벗어나기 때문에 무례하게 다가올 수 있다는 의미지만 이 무례함은 예술 창작의 에너지로서는 대단히 소중한 자산입니다.

2) 시대 혼의 탐식자, 표현 방식과 매체의 두려움 없는 확장자

그가 거처온 옛 작가로서의 길을 따라가 보면 그의 시대 혼에 대한 탐구 정신은 그를 ‘탐식자’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는 세상의 시대상을 수색하고 파헤치고 마침내는 그 탐색한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시대 혼의 탐식자’입니다.

그가 탐식한 시대상 속에는 조금 전에 언급했던 생명의 아픔과 비애가 들어있죠. 작가가 삼킨 시대상은 그가 추구하는 여러 표현 매체를 통해서 생명을 부여받아 예술 작품으로 탄생하고 있습니다.

안창홍은 시대상을 표출하는 과정에서 그만의 독특한 아이디어가 드러나는데, 그는 이 아이디어를 보통 작가들이 시도하지 않는 아주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실험적으로 토해내고 있습니다. 다른 매체의 도전은 안창홍이 작가로서 보여온 그만의 특화된 표현 방법과 더불어 굵고 깊게 그어나가는 또 하나의 독특한 궤적이라고 봅니다. 70년대, 80년대, 90년대를 거쳐 2000년대로 들어와 오늘에 이르기까지 안창홍이 추구한 표현의 확장은 이를 가로막을 벽이 없을 정도로 거침이 없습니다.

이는 세계 미술사에서 미국의 제프 쿤스(Jeff Koons, 1955~), 영국의 데미안 허스트(Damien Hirst, 1965~) 등 오직 몇몇 작가에게서만 보이는 '표현의 확산 양상'이라고 봅니다. 표현 확장의 양식으로 여러 매체를 섭렵한다는 것은 각각의 새로운 매체에 대한 두려움 없는 도전 정신과 실험을 통한 확고한 신념이 없이는 결코 원하는 결과물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보기엔 이런 매체의 확장에 확고한 신념을 보이는 세계적인 두 현대 작가의 어깨에 안창홍이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전진하고 있습니다.



제프 쿤스(1955~)



데미안 허스트(1965~)

안창홍은 화가이면 누구나 손쉬운 도구인 연필, 색연필, 콜라주 사진 위에 에폭시, 회화 물감뿐만 아니라 이미 80년대 초부터 입체작품으로도 표현 영역을 넓혀 오고 있었죠. 테라코타와 나무 조각을 시도했으며, 시멘트 혼합 재료, FRP, 알루미늄, 혼합 재료, 합성 레진으로 만든 입체를 자유롭게 수용하게 되는데, 여기서 놓쳐서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시각은 안창홍 스스로 본인은 '페인터'라는 사실을 언제나 작가 자신에게 각인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그가 작업하는 입체는 단순한 대상으로서의 입체가 아닙니다. 그 입체 표면에 안창홍은 페인터로서의 흔적을 남긴다는 명제에 한순간도 허술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아주 지독하고 철저하게 그리고 역력하게 페인터로서의 소임을 완수하는 것을 숙명처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 아직 끝나지 않았다,
테라코타, 36×22×15cm, 1988
▶ 송리자의 팔,
나무조각, 53×18×12cm, 1989

◀ 얼굴들,
시멘트, 석고에 혼합매체, 30×20×10cm, 2018
▶ 화가의 심장,
FRP, 알루미늄에 아크릴, 138×138×158cm, 2019

가면들,
FRP에 혼합 매체,
146×86×44cm, 2017

눈 먼 자들,
합성수지에 아크릴, 각 213×117×110cm, 2019

여기서 <눈 먼 자들> 조각에 열중인 2019년의 작업 시점에서 1년 뒤인 2020년으로 시간을 넘겨 보겠습니다. 2020년 여름 안창홍은 또다시 새로운 매체에 눈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지금으로부터 만 1년 반 전부터 안창홍의 새로운 도전은 시작되었죠. 현대인의 일상 필요품인 스마트폰에 그는 작가로서 새로운 집념의 불꽃을 피워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손바닥 속의 스마트폰이 그의 캔버스가 된 것이죠. 스마트폰 속에서 패션 사진을 차용한 다음 앱을 이용해 필요 없는 부분을 지우고 그 위에 작가가 원하는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2020년 여름부터 시작된 디지털 펜화는 무려 300점에 이르렀고 그중 50점을 엄선해 2021년 바로 올해 2월 <유령패션> 시리즈를 프린트해서 서울의 한 갤러리에서 전시를 했습니다. 그 후 과야사민미술관 특별초대전을 위해 바로 올해 여름 동안 100호 크기 유화 20점을 완성하는 그야말로 괴력을 보였습니다.



눈 먼 자들 표면 위에 페인팅 작업



스마트폰으로 유령패션 디지털 펜화 작업

<유령패션> 시리즈를 통해 작가는 현대 시대상 속에서 패션이 지니는 화려한 현상을 완전히 뒤집어 패션의 고유한 의미에 대해 전면적 재해석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안창홍은 현대 문명의 한 단면인 '치장의 화려함' 속에 내재된 허무한 '인간 실상'을 보여주는 작품을 탄생 시키고 있습니다.



서울 호리아트스페이스 안창홍 개인전 <유령패션> 2021년 여름, 안창홍 작업실 <유령패션> 작업 사진

유령패션,
유화 연작, 캔버스에 유채, 162.2×112.1cm, 2021

여기서 저의 오늘 발제의 주제 중 핵심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껏 인간 개인이나 소규모 집단의 비애를 주된 대상으로 삼았던 안창홍의 작품은 <유령패션> 작업으로 들어오면서 '인류 문명 비판'이라는 새로운 대상으로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이는 그의 작업 50년 창작 역사에서 획기적인 전환점을 의미하며 커다란 획을 긋는 하나의 장을 마련하게 된 것으로 작가로서는 대단히 의미심장하고 위대한 사건이라고 봅니다. 안창홍의 작품 세계는 작가가 지난 50년의 창작을 통해 추구해왔던, 주로 한국 내에서 초점을 맞춘 인간 개개인이나 소집단이 지닌 깊은 비애의 흔적을 대변하던 시기에서 벗어나 개인이 아닌 인류 전체를 아우르는 문명의 비판이라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문명 비판이라는 이 커다란 주제에서 패션은 하나의 '아이콘' 또는 '매개체'로 작용한 것이죠. 현란함과 화려함을 낚아채 이 속에 내재한 과도한 소비, 부실한 인성, 그리고 마침내는 '허무'라는 실체를 작가가 질타하고 있죠. 이번 특별전을 통해 선보이는 유화 20점의 <유령패션> 시리즈는 안창홍의 작품 세계에서 현대 문명 비판이라는 대단한 전기를 마련한 작품 시리즈로 남을 것이라고 봅니다.

여기서 잠시, <유령패션> 시리즈와 관련해서 안창홍의 매체 확장에 대한 의지를 현시점으로 옮겨 살펴보겠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시작된 디지털 펜화가 프린트와 20점의 당당한 페인팅으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안창홍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5개월 전 안창홍의 작업실 사진입니다. 이번 특별전에 출품한 <유령패션>의 마지막 완성단계를 보여주고 있죠. 그로부터 불과 두 달 반 후 <유령패션> 20점이 완성되었고 사비나미술관에서 최종상태를 확인하고 사진 촬영을 마치고 포장을 완료한 후 에콰도르로 운송하기 위해 트럭에 실어 나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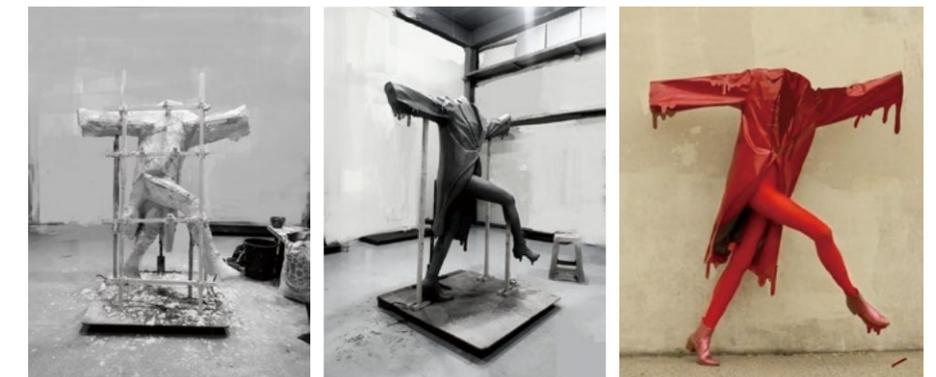
이런 대작을 집중해서 미친 듯이 완성하고 나면 제 경험상 작가들은 거의 탈진 상태로 허탈해지기도 하고 육신이 마모되어 한동안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그러나 안창홍의 영혼은 인간 안창홍 육체 속에 안주하길 원하지 않고 표현 매체의 확장을 위해 외부로 뛰쳐나가고 있습니다.



유령패션의 최종 작품상태 확인

<유령패션> 디지털 펜화는 안창홍의 탈출한 영혼을 타고 부산으로 날아갑니다. 거기서 유령패션 평면작업이 입체로 태어나는 첫 번째 단계인 흙으로 빚은 조각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작업은 다른 작가의 손을 빌려서 만드는 것이 요즘 현대미술 작업의 일반적인 방향입니다. 디지털 펜화에서 프린트로 그리고 대작 페인팅 20점에 만족하지 않고 평면작업을 드디어 입체작품으로 탈바꿈시키고 있는데, 입체로 만드는 이 과정은 지금 여러분이 모여있는 이 시각에 한국에서 현재 진행 중입니다. 또 다른 새로운 매체에 대한 끓어오르는 강렬한 도전 욕구를 보여주고 있는 안창홍, 표현 매체의 확장에 대한 그의 헝그리 정신은 지금도 불게 타오르고 있습니다.

이 <유령패션> 입체작에 대한 도전은 안창홍의 창작 투혼과 미개척지에 대한 '탐험가적인' 정신이 여실히 드러나는 측면입니다. 이 석고 거푸집을 이용해 FRP로 제작된 매끈한 조각이 완성되면 앞서 언급했던 페인터로서의 안창홍의 투혼이 이 입체 표피 위에 불꽃으로 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를 '시대 혼의 탐식자'며 '표현 방식과 매체에 두려움 모르는 확장자'라고 보는 것입니다. 제 주제 발표는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FRP 석고 몰드

점으로 제작한 입체 조소

스마트폰에 디지털 드로잉

한국 · 에콰도르 수교 60주년 기념
안창홍 특별초대전 세미나

안창홍, 이름도 없는 존재들에 바치는
진혼곡 혹은 오마주



고충환
미술평론가

한국에는 예술이 부조리한, 폭력적인, 억압적인 현실에 맞서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도구라고 믿고 이를 실천하는 ‘민중 미술’이 있습니다. 1980년대의 정점에 이른 민중미술은 이후 형상미술, 정치미술, 참여미술로 그 옷을 갈아입으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당시 민중 미술의 한 가운데 있었던 안창홍 작가는 이런 미술 이념과 함께 자기만의 형식을 완성하는 데에도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예술을 이념적인 도구로 사용하면서도 단순한 사회적 발언을 넘어 존재론적 깊이를 파고들면서 상대적으로 더 폭넓은 감동과 공감대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 지점이 과야사민과 안창홍 두 작가가 공유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르게 말하자면, ‘세상을 향한 분노와 존재에 대한 연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인데, 분노가 있어야 연민도 있다는 점에서 분노와 연민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것인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두 작가는 비록 생전에 서로 본 적은 없지만 보이지 않는 동지 의식으로 서로 결합되어 있었다고 해도 좋을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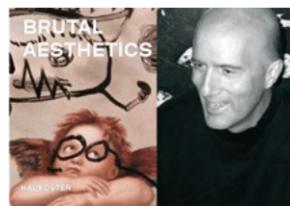
◀ 오스왈도 과야사민, **분노**, 캔버스에 유채, 134×95.5cm, 1963-1965
▶ 안창홍, **절규**, 종이 위에 색연필, 잉크, 79.5×109.5cm, 1986



◀ 오스왈도 과야사민, **엄마와 아이**, 캔버스에 유채, 105×176cm, 1982
▶ 안창홍, **보리밭의 문둥**, 종이에 연필, 109.5×79.5cm, 1990

그러면 이제 작가의 근작을 통해서 작가의 예술 세계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유령패션>을 보죠. 사람들은 보통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옷을 입습니다. 그래서 옷을 입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라고 할 수가 있겠죠. 다음으로선 ‘사회적인 기호’로도 작용하는데, 각종 제복이 그런 경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옷을 입는 가장 진화된 경우가 ‘미학적’ 이유라 할 수 있을 것인데, 이제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만의 취향과 스타일에 맞춰 옷을 입습니다. 특히, 자본주의 이후 어떤 옷은 욕망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데, 안창홍 작가는 이처럼 ‘욕망의 대상’으로서 옷이 갖는 의미에 주목합니다. 사람들이 빠져나간 텅 빈 도시의 밤에 저 홀로 불을 밝히고 있는 쇼윈도의 진열된 옷들이죠. 그 자체로는 생명도 없고 영혼도 없는 텅 빈 옷들에서 작가는 마치 유령과도 같은 욕망의 그림자를 봅니다. 미술평론가 할 포스터(Hal Foster, 1955~)는 “욕망과 죽음과 아름다움이 하나”라고 봤는데, 욕망의 세 얼굴이라고 해도 좋을 것입니다. 안창홍 작가의 <유령패션>은 어쩌면 이런 욕망의 세 얼굴을 이렇게 함축하고 있는 작업이라고 봐도 좋을 것입니다.

그렇게 <유령패션>을 매개로 작가는 그 이면에 죽음의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할 포스터(1955~)
『잔혹의 미학』(2020)



얼굴들, 시멘트, 석고에 혼합매체, 각 30×20×10cm 내외, 2018

이름도 없는, 캔버스에 유채, 각 38×38cm, 2019

그래서 작가가 그린 옷들을 보면 실제로 피를 흘리고 있죠. 그는 치명적으로 아름다운 욕망을 그려놓고 있습니다. 여기서 작가는 <유령패션>을 그리기 전에 먼저 스마트폰으로 그림을 그렸는데, 새로운 미디어에 대한 호기심과 함께 시대 감정을 선도하는 또 다른 일면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얼굴들> 연작을 보겠습니다. <얼굴들> 연작은 역시 얼굴을 소재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름도 없는> 시리즈와도 통합니다. <얼굴들> 연작이 입체와 조각으로 표현이 되고 있다면, <이름도 없는> 시리즈는 회화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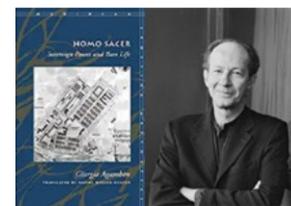
그래서 <얼굴들> 연작은 이웃 사람들, 익명의 사람들, 보통 사람들을 일정한 테마로 설정하며 풍자적이고 해학적인 면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르주 아감벤(Giorgio Agamben, 1942~)은 ‘벌거벗은 생명’, 그러므로 법으로부터 마저도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노숙자라든지, 시대와 역사의 희생양이라든지, 정치적 소신 때문에 정신병원에 내몰린 사람들, 그리고 어떤 노동 현장에서 한날 도구로 전락한 사람들, 사회에서 밀려난 사람들, 작가는 이런 사람들을 ‘이름도 없는 사람들’이라고 부릅니다.

아마도 <이름도 없는>이라는 제목은 바로 이런 작가의 명명에서 유래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들은 이름만 없는 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가 역사에서 지워진 사람들이죠. 작가는 이 참혹하고 억울한 죽음들을 모아 제의를 치러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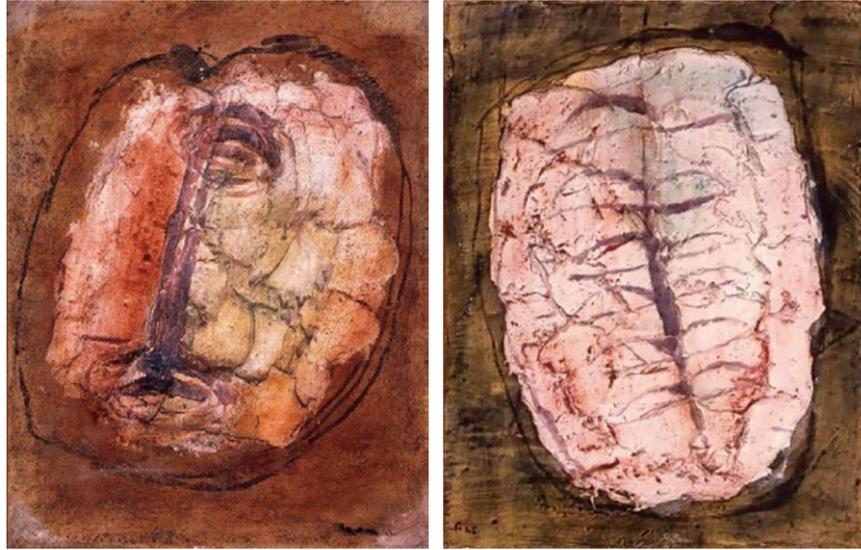
원래 49개 시리즈로 계획된 것인데, 사람이 죽으면 49일 동안 세상을 떠돌다가 마침내 하늘로 올라가는 소위 ‘49’제의 천도 의식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죽은 사람들을 보면 하나같이 으깨지고, 부서지고, 파문혀서 그 얼굴을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단말마와도 같은 고통이 외침으로, 아니면 침묵으로 육화된 으깨어진 물질 덩어리를 보는 것 같고, 그 자체가 마치 장 포르투리에(Jean Fautrier)의 <인질> 연작의 또 다른 버전을 보는 것도 같습니다. 실제로도 그들은



조르주 아감벤(1942~)
『호모 사케르-주권 권력과 벌거벗은 생명』(1995)

어쩌면 시대에, 역사에, 현실에 발목 잡힌 희생양들이고 인질들이라 해도 좋을 것입니다.



장 포트리에, **인질 No. 1**, 캔버스에 유채, 36×27cm, 1944

장 포트리에, **인질 No. 14**, 종이에 유채, 36×27cm, 1944

다음으로, 〈눈 먼 자들〉을 보겠습니다. 여기에 ‘눈 먼 자들’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현실을 사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죠. 눈을 뜨고 있지만, 아무것도 보지 않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눈이 있음에도 사실상 눈이 없는, 그러므로 눈도 없고 정체성도 없는,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들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눈 먼 자들〉이 하나같이 유리구슬이라도 박아 놓은 듯 무표정한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목과 얼굴에는 욕망, 눈물, 투쟁, 적자생존, 격투기 그리고 전사(戰士)와 같은 현실 원칙을 대변하는 문자들이 숨어있거나 드러나 있습니다. 인정도 감정도 없이 그저 살아남기 급급한 전쟁과도 같은 현실에 대한 자의식을 표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 제공이라는 명분으로 사실은 효율적인 감시체계를 수행하는 바코드, 억압된 욕망과 좌절된 욕망을 상징하는 한쪽 꺾인 날개, 그리고 아마도 누군가가 죽은 날짜가 암호처럼 기록되거나 그려져 있습니다. 인상적인 것이 그들의 한쪽 눈에 열쇠 구멍이 있습니다. 제도가 이념을 투입하기 위해 만든 것이죠. 이념을 투입하고 전수하는 제도의 기획을 표상화 한 것입니다. 그렇게 작가는 〈눈 먼 자들〉 연작을 통해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눈도 없고 정체성도 없는 사람들, 그리고 그 자체 생존전략이기도 한 무표정한 사람들의 초상을 그려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작가는 근작에서 〈유령패션〉, 〈얼굴들〉, 〈눈 먼 자들〉 연작을 통해서 부조리하고, 억압적이고, 폭력적인 현실을 고발합니다.



눈 먼 자들 입체작품에 새겨진 문자 및 코드 (투쟁, 전사(戰士), 눈물, 열쇠 구멍, 바코드)

한편으로, 〈예술가의 똥〉, 〈화가의 손〉, 〈화가의 심장〉과 같은 또 다른 작업을 통해 이런 부조리하고 억압적이고 폭력적인 현실에 맞서는 예술가의 자의식 면에서도 다른 창작 주제들의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술가의 ‘자의식’은 예술을 가능하게 하는, 예술을 지속하게 하는 원동력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예술가의 똥, 천에 아크릴, 194×97cm, 19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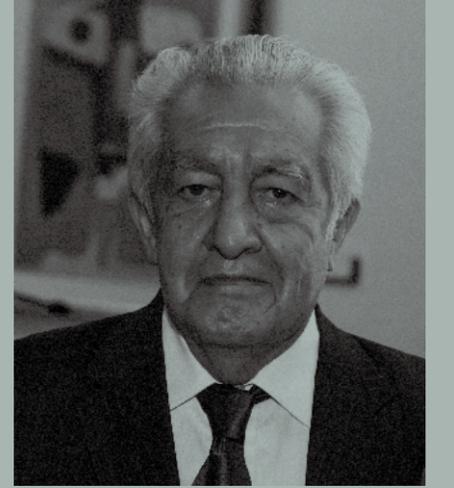
화가의 손, FRP에 아크릴, 300×200×45cm, 2019



화가의 심장, FRP, 알루미늄에 아크릴, 138×138×150cm, 2019

한국 · 에콰도르 수교 60주년 기념
안창홍 특별초대전 세미나

오스왈도 과야사민 작품에 담긴 강렬한 미학,
과야사민 미술관에서의 안창홍 특별초대전의 의의



파블로 과야사민
과야사민재단 회장

키토 과야사민재단에서 한국의 안창홍 작가님의 훌륭한 작품을 전시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사비나미술관 이명옥 관장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마을에서 마을로 도시에서 도시로, 우리는 매우 큰 비참함을 목격했다. 검은 진흙으로 뒤덮인 마을들, 검은 땅, 검은 진흙 묻은 아이들, 추위에 겹겹이 그을린 사람들의 피부, 그 눈물이 소금인지 돌인지 알 수 없을 때까지 수백 년 동안 눈물로 얼어붙은 곳, 단지 진흙과 바람만 있는 곳”이라고 말합니다. 라틴아메리카의 이러한 현실은 작가로 하여금 <분노의 시대>로 일컬어지는 일련의 작품들을 작업하도록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는 이 작품들을 통해 작가는 민중의 감정을 노래하는 사람이자 그 감정을 울고 웃는 모습으로 전달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과야사민이 하는 일이고, 또한 한국 작가들이 하는 일이겠지요.

20세기는 아마도 인류가 겪은 가장 폭력적인 시대일 것입니다. 제1차, 2차 세계대전, 강제 수용소,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자 폭탄, 그 이후 라틴아메리카에서는 아르헨티나와 칠레 그리고 우루과이의 독재 정권 등 저항도 전쟁이 일어났으며 삶의 가치를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곳이었습니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은 과야사민이 <분노의 시대>라는 제목의 작품을 그리는데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오스왈도 과야사민이 1963년 바르셀로나 비엔날레에서 수상하였을 때 그는 그 상금으로 스페인 전역을 여행했고 스페인 여성들이 검은색 옷을 입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스페인의 많은 가정이 상중인 것과 여성들이 끊임없는 희생을 치르고 있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그는 일주일 내내 스페인 여인들의 눈물이 반복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총 7점의 작품을 남기게 됩니다. 이것은 스페인 내전에 대한 그의 저항의 메시지로 읽어낼 수 있습니다.



산의 머리,
캔버스에 유채, 95×134cm, 1974



반란군, 캔버스에 유채, 135×95cm,
1963-1965



눈물 흘리는 여인들, 캔버스에 유채, 각 145×75cm, 1963-1965

이후 그는 유대인의 머리, 네이팜(Napalm) 머리, 케릴라 대원, 흑인 아이, 어머니, 두려움, 울부짖음, 분노 등을 나타내는 인간의 얼굴을 그리게 됩니다. 이 얼굴들은 안창홍 작가의 <눈 먼 자들>의 모든 작품들과 완전히 닮아 있습니다. <눈 먼 자들>은 위대한 조각 작품들로서 고통과 아픔으로 가득한 두상 작품들이고, 살아있는 현실에 대한 메시지를 가득 담고 있습니다. 과야사민은 같은 길을 계속 걸으며 <Las Manos(손, 手)>로 일컬어지는 연작을 그리게 됩니다. 지금은 <눈 먼 자들>과 함께 전시되어 있지요. 두려움의 손, 침묵의 손, 탐욕의 손, 거지의 손, 기도의 손, 다정한 손으로 시작하여 저항의 손으로 끝나게 됩니다.



안창홍의 눈 먼 자들과
오스왈도 과야사민의 Las Manos (손, 手)



손(手),
캔버스에 유채, 640×1024cm, 1968

그는 강제 수용소에 대한 인상을 11점의 작품으로 남겼습니다. 멕시코 출신 미술평론가인 베르타 타라세나(Berta Taracena)로부터 키네틱 표현주의라는 평가를 받기도 하였는데, 마치 카메라로 얼굴을 가까이 찍다가 뒤로 멀어지며 전신을, 그 여인 몸들을, 촬영하는 것과 같은 모습이지요. 지금 함께해 주고 계신 안창홍 작가님 작품들의 궤적과 닮아 있습니다. 태평양을 넘어 한 명은 아시아, 다른 한 명은 상처 입은 우리 남미 출신이지만 이 두 예술가들은 놀랍도록 닮아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역사상 가장 많은 폭격을 받은 나라 중 하나인 베트남이나, 인간의

피부를 화학물질과 산성으로 불태우는 살상 무기인 네이팜(Napalm)을 같은 맥락으로 그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라틴아메리카의 현실을 담아 <피의 강>을 그립니다. 식민지 지배 시절을 묘사하며 총 맞은 사람들과 채찍질 당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렸는데 과야사민이 지녔던 예수상의 형상을 반영하였습니다. 칠레 산티아고시 한가운데에 흐르는 마포초 강에서는 시신들이 떠다니는 모습이 목격되었고 이 시신들에는 모두 폭력의 흔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과야사민이 살아야 했던 현실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항 정신과 인간이 존중 받는 삶의 공간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투쟁하였습니다. 지위가 낮다 하여, 가난하다 하여 혹은 글을 모른다 하여 착취당하고 공격받지 않는 공간 말입니다.



피의 강,
캔버스에 유채, 137×188cm, 1976



네이팜 머리,
캔버스에 유채, 122×122cm, 1976

이것은 안창홍 작가님의 메시지와 정확히 일치하기도 합니다. 이들은 두 명의 쌍둥이 형제 같습니다. 한 명은 남미 밖에서 또 다른 한 명은 다른 현실 세계에서 살고 있지요. 따라서 이 전시회가 되도록 많은 미디어를 통해 알려지는 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더불어 이런 사회를 위한 고발행위에 국경이나 장벽은 없어져야 할 것입니다. 과야사민은 이런 경계선을 허물고 인간의 평등을 추구하는 투사였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돈으로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성과 사고능력 또한 포용능력으로 평가받아야 합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의 집을 짓는 사람도 똑같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건물을 짓는 목수나 석공이 없었다면 우리는 동굴에서 살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맨발로 다니지 않고 신발 한 켤레를 가질 수 있게 해주는 제화공이나 매일 우리의 배고픔을 채워주는 제빵사도 그 못지않게 중요하지요. 또한, 우리를 치료해 주는 의사나 사상가 혹은 정치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화가도 중요하지요. 예술 작품의 창조자이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민중의 감정을 울고 웃는 모습으로 노래하고 전달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작품의 조형적 부분을 비평적으로 해석하기 위해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닙니다. 안창홍 작가님께서 키토로 가져와 주신 작품의 메시지와 마찬가지로 거장 오스왈도 과야사민이 그의 그림을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과야사민은 2009년 아바나(Havana)에서 열린 대통령 정상회담에서 ‘이베로아메리카(Ibero-America)의 화가’로 명명 받았습니다. 포르투갈, 스페인 및 라틴아메리카의 모든 대통령들은 과야사민을 ‘이베로아메리카(Ibero-America)의 화가’로 선언하였지요. 안창홍 작가님은 인류의 화가이자 아시아의 화가로 칭송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사 숙녀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SESSION CHAIR

BG Muhn

Artist and Professor at Georgetown University

Buenas Tardes Señoras y señores.

My name is BG Muhn and I have the great privilege of leading today's seminar. I am a practicing artist and a professor of art. I have taught at Georgetown University in Washington D.C for over 30 years. It is a real honor to participate in this very significant event, a collaborative effort among the Ecuadorian and Korean governments and museums in both countries to celebrate the 60th anniversary of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the two nations. This exhibition, here in Ecuador, is part of a cultural exchange between Ecuador and Korea, as Oswaldo Guayasamín's works were also exhibited at the Savina Museum of Contemporary Art in Korea one year ago. I want to acknowledge that Ahn Chang-Hong was selected as the featured artist for this show through a rigorous competition known as 'The 2021 International Art Exchange Exhibition Grant Program,' which was hosted by the Korean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National Painter of Ecuador: Oswaldo Guayasamín Special Exhibition〉 Installation View at Savina Museum of Contemporary Art, 2020

The Savina Museum of Contemporary Art in Korea, representing Ahn Chang-Hong, has made tremendous efforts to make this exhibition possible. I'd like to express my appreciation to the many organizations that have supported and sponsored this endeavor, including the Guayasamín Foundation in Quito, the Embassy of Korea in Ecuador, and Samsung Electronics Latinoamérica which has provided us with a big screen for today's seminar.

Ecuador and Korea have made efforts to elevate the art as a means of first resort in their rich diplomatic relationship. Acknowledging that there could be many other ways to establish and strengthen the diplomatic connection, it is impressive to see that art was chosen to consolidate and

celebrate the bond between the two countries. The very fact that art was chosen as the central point, is a reflection that both countries hold a high level of respect toward art and the noble speech of artists. “Ahn Chang-Hong Special Exhibition” being here at the Casa Museo Guayasamín and La Capilla del Hombre, two very significant and highly respected venues in Ecuador, is truly a cultural phenomenon, as a foreign artist’s work being featured with Ecuador’s finest and most meaningful art. Of course, I speak of the works of Oswaldo Guayasamín.

Ecuadorian painter and sculptor Oswaldo Guayasamín was known for powerfully capturing the political oppression, racism, poverty, and class division found in much of South America. Three of the themes, most of them found in Guayasamín’s work, are the atrocities of war, maternal love, and the plight of the poor and the oppressed.



The Scream Series, Oil on canvas, 130 X 89cm, 105 X 75cm each, 1983

He created Pan-American Art that addressed human and social inequalities for which he achieved international recognition. Guayasamín painted captivating symbols of truth in society and the injustices around him, all with a heavy focus on his subjects and the representation of human suffering. For these reasons, he remains a cultural hero and the most significant artist in Ecuador. The heart of Guayasamin’s work can be described as an aggravated form that is howling for the recognition of the sublimity of humanity which must not be damaged and should remain preserved.



Mother and Child, Oil on canvas, 110 X 110cm, 1989



Blindness exhibited around *The Eternal Flame* for Human Rights and Peace



Casa Museo Guayasamín



La Capilla del Hombre

This noble humanity that Guayasamín expressed through his work is cherished and remains alive today here at Casa Museo Guayasamín and La Capilla del Hombre. Korean artist Ahn Chang-Hong being able to exhibit his work at these same venues carries an incredible meaning. Especially, in the aspect of his pieces being installed next to *The Eternal Flame*, which symbolizes the spirit of Oswaldo Guayasamín.

Furthermore, until now, La Capilla del Hombre was a venue where only one foreign artist’s work had ever been exhibited: this being in 2009, that artist was 18th- 19th-century master Francisco Goya. Twelve years later, here today, another foreign artist, Ahn Chang-Hong is showing his work. This remarkable history certainly contributes to the significance of Ahn’s exhibition at these venues that it is a true cultural phenomenon. I hope this special exhibition and seminar which will review the spirit of the times through the works of Oswaldo Guayasamín and Ahn Chang-Hong will continue to serve as a cultural bridge not only between Korea and Ecuador but Korea and Central and South America as a whole.



Francisco Goya, *The Third of May 1808*, Oil on canvas, 266.2 X 345.2cm, 1814

Roundtable Seminar In Conjunction with Ahn Chang-Hong Special Exhibition

Artist Talk : Q&A with Artist Ahn Chang-Hong

* Panelists

Pablo David Guayasamín Monteverde President of Guayasamín Foundation

Kho Chung-Hwan Art Critic

BG Muhn Artist and Professor at Georgetown University

**1. Question & Answer Session
with Artist Ahn Chang-Hong
– Pablo David Guayasamín Monteverde**

Pablo David Guayasamín Monteverde : What inspired your work, *Blindness*? Where did you find the motif for the work? I personally find it to resonate with Guayasamín’s works, in expressing the pain and violence of the 20th century.



Installation View of *Blindness*, “Ahn Chang-Hong Special Exhibition” at La Capilla del Hombre, 2021

Ahn Chang-Hong : Just as you have pointed out, my work is inspired by violence between nations, classes, and humans, and the devastation of human nature, which I turn into a sculpture and paint over to portray psychological problems within humans. *Blindness* also shows such portrayal.

Let me talk to you more about the series, *Blindness*. Faces of people interest me, and I have used faces as a medium to tell various stories.

Such as *Forty-Nine People’s Meditation* series, *Family Portrait* series, *Mask* series and *Sad Evaporation* series etc., when I painted, I have solely focused on faces and eyes.

Eyes are windows to the heart, so by shutting the eyes or eliminating them as if they were extracted, I wanted to present the scars of the times, devastation of human heart and the violence within, which the *Blindness* delivers.



Forty nine people’s Meditation,
Mixed media, 109.5×75cm, 2004



Family Portrait,
Oil on canvas, 30.3×162.2cm, 1980



Mask,
Mixed media on FRP, 146×86×44cm, 2017

16th April 2014, 8:50am, 325 young students who were on their school trip drowned at the coast of Jindo County, with the majority lost to the sea. It was an absolute tragedy, and I cannot think of any more tragic incident than this. This heartbreaking incident was a vile atrocity committed by adults consumed by greed and wealth. Wouldn’t it have been the result of the chariot of desire and greed, the mammonism? Those who cannot see with their open eyes, the eyes which only gaze towards the gold and nothing else, eyes that are distorted in greed, I wanted to present the distorted figures of such people, and portrayed it through *Blindness*.

2. Question & Answer Session with Artist Ahn Chang-Hong – Kho Chung-Hwan

Kho Chung-Hwan : I always come across connotations of the times and historical subjects in Ahn Chang-Hong's works. You have noted that 'ghost city' will be your main subject for coming years, with *Ghost Fashion* as the outset. Please share your thoughts about the subject of ghost city and its presentation.



After Human Being(Motif of Ghost Fashion), Collage and oil on canvas, 95×182.5cm, 1979

Ahn Chang-Hong : I am not sure if the tower of civilization built by humans will do us good or harm in the very end. Materialism and monopoly capitalism, in which wealth breeds wealth, creates the gap between nations, classes, and between people, which creates a top-down society of ruling class and the governance class. I navigated my attention to 'fashion', which is one of the most definitive symbols of this top-down society.

It is the flower of civilization and the hierarchical society, the symbol of self-display and wealth, and the symbol of capitalism which visualizes the differences between classes, with the fashion world lying at the peak of human desire, a charming and contradictory vanity and extravagance which one cannot say no to, on a bustling street filled with lights in fashion district, where only empty clothes without souls roam around the street, which is an illusion yet also real, through these eccentric scenes, I wanted to talk about the 'tower of babel' that we built, about dystopia, and about despair.

3. Question & Answer Session with Artist Ahn Chang-Hong – BG Muhn

BG Muhn : I will now pose our final question to artist Ahn Chang-Hong. You're having a very significant exhibition here in Quito, Ecuador, and I hope you will continue to have opportunities to show your work around the world. You've already established your reputation as an artist in Korea and now worldwide. However, when you were younger, you chose not to pursue a college education. How might that decision have impacted your artwork differently from the work of other artists who have taken a more traditional pat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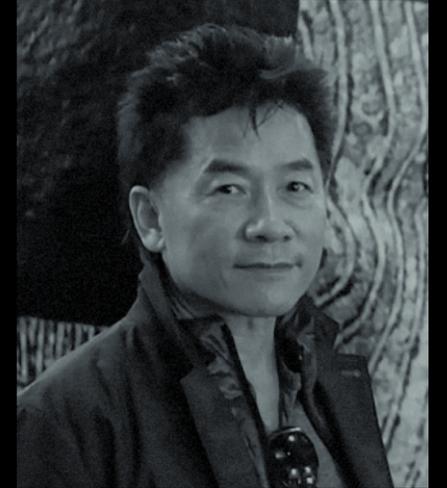
Ahn Chang-Hong : As a result, my rejection of institutional education helped me a lot in my career as an artist. Art education back in the days were reliant on rote learning, which included particular methods of drawings such as plaster cast sketches, still-life drawings, etc., I was very lucky to have been freed from such hideous tasks of having to learn the ways as if it were life or death, than after getting accepted into school, to try endlessly to deviate from such methods.

Artists do not acquire techniques. It is also not about appropriating others and making it one's own. If one needs knowledge, one can search for it in the books, and if one needs wisdom, one can find it within one's life. Of course from time to time, it was difficult to work within the art world filled with school ties, regionalism and authoritarianism, but what good life comes without pain? It's my own life I chose for myself, not anyone else, so I continue walking down this path as an artist.

I have not compared my works to those who have received institutional education. I have sent endless applause to artists who delivered great practice by breaking free from the authoritarian walls of institutional education. Just as our life exists in various forms, I believe the form of art should be the same. Ones who have received institutional education have a life given to them through education, and those who have resisted them have a life just as they have resisted it.

Roundtable Seminar In Conjunction with Ahn Chang-Hong Special Exhibition

**The Art of Ahn Chang-Hong,
Through the Lens of Artist BG Muhn**



BG Muhn

Artist and Professor at Georgetown University

Having started my practice in America, I have continued to work mostly in America, and the first time I met Ahn Chang-Hong was at the Arario Gallery in Seoul. It was 9th June 2019, when his solo show “Heart of the Artist” was on view. Of course, I often encountered Ahn’s works in the media, so I knew what kind of artist he was even before meeting him in person. We two people met for the first time in the summer of 2019, but we already have known each other through each other’s works.



Ahn Chang-Hong’s Solo Exhibition, “Heart of the Artist” at Arario Gallery, Seo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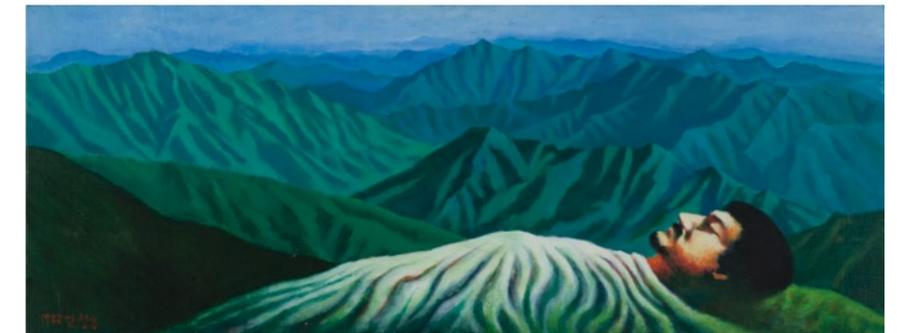
Ahn’s oeuvre is very wide and deep. It has been over 50 years since he has dug his way into his world. If you look into the trends of work that have been unfolding for the past 20 years which range from early 70s to late 80s, first, in his free way of presentation, you will see glaring eyes of the artist showing bizarre humor through expanded imagination.



Into the Abyss, Oil on canvas, 54.5×39cm, 1972
Hospital, Oil on canvas, 80.3×100cm, 1976
Prostitution, Acrylic on paper, 35×23cm, 1980
Father and Son, Colored pencil on paper, 79.5×109.5cm, 1986
Endless Escape 2, Acrylic on paper, 109.5×76.5cm, 1989

Ahn captures the imagery of his subjects with a wild manner, and his imagination is full of resistance. For one’s imagination to be full of resistance means that the artist’s own spirit of resistance is embedded in the essence of time. The reflection of the times, and artist’s resistance towards such holds a considerable wit and biting satire. His works from the 70s and 80s thrash with vitality of the wild, but from early 80s and onwards Ahn embraced the reflection of times within himself and started to domesticate them. When an artist domesticates the reflection of time, thus taming the essence of time within oneself is equivalent to adding maturity and depth to one’s practice.

At the end of 80s, Ahn delivered a precognitive piece of work. Entitled *The Sleep of the Giant*, this work seems to have predicted his own future. People with clear minds can sometimes see the visions of the future, and maybe Ahn also had such visions. I see that he has dreamt through this work that he would become the giant within the art world who would have paved his own path and created meaningful works of art in the future.



The Sleep of the Giant, Acrylic on canvas, 32×93cm, 1989

1) A Covert and Indecent Designer of Life

This subtitle delivers that there lies an ‘unsettling unfamiliarity’ that holds solemnity within Ahn’s work. Unfamiliarity is a living awkwardness and discomfort. What lies in his works do not welcome the viewers with warm hugs. However this awkward unfamiliarity does not get disregarded. Somehow it appeals to the viewers with unknown charm. This unfamiliar charm affects the viewers like a magnet, and leaves the image within the minds of the viewers to linger. When seeing his works, the unfamiliarity

which lingers as an afterimage is a 'code' which Ahn embedded within his works. Within the unfamiliarity, he embedded the code of life's sorrow. With life's sorrow deeply embedded, underneath the unfamiliar look of his work, there lies sorrow as a living being deep within his work. The reason Ahn's works strike the minds of the viewers is because the persistent exploration of this sad living being is innate within the works. Ahn's obsession towards life's sorrow in his works is delivered to the viewers and sends them chills.

In Ahn's paintings, there are 'nudity', 'explicit and plain sex appeal', 'scenes of people one can easily run into in markets, towns and in bars', and 'images of mating dogs', while in his photography one encounters a 'disfigured human being'. Each and all are somewhat uncomfortable to be delivered into works of art. It is somewhat embarrassing for the viewers to approach. All kinds of status quo dispersed around the world can become the target of an artist's subject. Amongst numerous targets, Ahn aims his gun towards the unfamiliar state. But what he really aims to shoot is not the unfamiliarity itself but 'the sorrow of life' which is hidden beneath the unfamiliarity. Sorrows of living being are not only limited to be experienced between the birth and death of living beings, but it is a sadness about the perpetual time which exists within the huge circulation of continued birth and death.



Man and Wife,
Acrylic on canvas,
194×130cm, 2010



Tattoo Man,
Acrylic on canvas,
194×114cm, 2010



Liquor and Tongue,
Acrylic on canvas,
91×65cm, 1998



Vacation of 'Sundori',
Acrylic on canvas,
61×95cm, 1995



Broken Face,
Acrylic on canvas,
310×210cm, 2008

Ahn is 'an artist who draws out sorrows of perpetual time'. This 'perpetual time' flows along the joy and sorrow which inevitably occurs during the circulation of life and death of living beings. Amongst the living beings, humans especially seem to live through the memories of pain rather than enjoying the delights of life, and live day by day with a momentary sense of relief. Perpetual time flows like a calm river, which does not open up the traces of pain the living suffers. Ahn puts his focus on the perpetual time, and makes ceaseless efforts to draw up the sorrows of life within.

And as this pain and sorrow is presented with unfamiliarity, the viewers are disturbed. Ahn's works exist within these discomforting feelings. He is very ungenerous in providing comfort through art. His stubborn way of triggering discomfort paradoxically allows his work of art to exist as a living being. It is the 'aesthetics of discomfort' which allows his art to exist as a living being right in this moment and also in the future. In the history of art, there have not been a lot of artists who have worked to deliver aesthetics of discomfort. The aesthetics of discomfort which is embedded in Ahn's practice does not merely derive from his spirit of resistance. Discomfort seems to derive from the subject he works on, which is the essence of life.

Within the roots of life, there lies joy, sorrow, despair, remorse, and agony all together. Ahn does not draw out joy, but sorrow and despair from the roots of life. Everyone comes across the sorrows and despairs of life, but these are the truths of life that we all wish to hide away. Therefore, Ahn's works seem melancholic and dark, but as it delivers the true face of life, there is a solemn sublimity running through his works.

With painting, collage, photography, print and sculptures, Ahn delivers the sorrows of life and death which all living beings have to suffer. In the process of this delivery, Ahn has created a unique chapter in the history of contemporary Korean art with his personalized sensibility and touch, and I expect his works to be widely known across the world.



◀ *Dangerous Game*,
Colored pencil on paper, 79.5×109.5cm, 1983
▶ *Broken Face*,
Epoxy on photograph collage, 109.5×52cm, 2006

Ghost Fashion,
Digital pen drawing, Digital print,
100×80.3cm each, 2021

Mask,
Mixed media on FRP, 146×86×44cm,
2016-2018

Consequently, I call him 'the covert and rude designer of life, who turns the sorrows inherent in life into art'. To be rude means that his works can create discomfort for the general viewers with it going beyond courtesy or common sense, however this rudeness is a very valuable asset as an energy for artistic creation.

2) A Devourer of the Spirit of the Times and A Fearless Expander of Various Expressions and Mediums

If you follow his footsteps as an artist, his inquisitive spirit on the zeitgeist is turning him into an 'edacious eater'. He searches and digs up the world's epoch and devours them all as 'the edacious eater of the zeitgeist'. In the world's epoch which he has devoured lies the pain and sorrows of life. The images of the era which he swallowed is then born into an artwork through the various mediums the artist works with.

In presenting the images of the era, Ahn's unique ideas shine, which he unfolds experimentally through various mediums. His challenges with various mediums are another unique trajectory that Ahn draws thick and deep alongside his exclusive ways of expression. Through the 70s, 80s, 90s to the 2000s till today, the expansion of Ahn's way of expression was unstoppable.

I believe such 'expansion of expression' in the history of art has scarcely been witnessed around the world, with Jeff Koons(1955~) of US and Damien Hirst(1965~) of UK being the rare examples. Exploring multiple mediums as a way of expanding expression means that it is impossible to achieve the desired results without a fearless spirit of challenge, and a solid conviction through experimentation. I believe tha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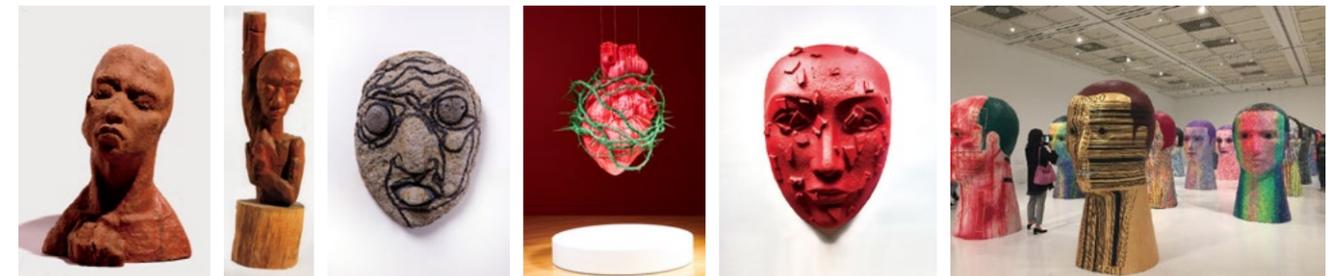
Ahn is advancing alongside the two world-class contemporary artists who show solid conviction in expanding their use of mediums.



Jeff Koons(1955~)

Damien Hirst(1965~)

From pencils and colored pencils which all artists will make use of, to making collage, photography, using epoxy and paints, and furthermore since the early 80s Ahn has expanded his practice into making three-dimensional figures. He tried using terracotta and wood, also cement mixtures, FRP, aluminium, mixed materials, and synthetic resin in making figures, what should not be overlooked here is that Ahn constantly reminds himself of his identity as a 'painter'. Therefore, the three-dimensional figure which he works on is not merely a solid figure. Ahn works with the proposition that he works as a painter to leave traces on the surface of the figure. And in a stubborn and exhaustive manner, he takes it as his destiny to accomplish his role as a painter.



◀ *Not Yet Finished*,
Terra-cotta, 36×22×15cm, 1988
▶ *The Arm of the Winner*,
Wood carving, 53×18×12cm, 1989

◀ *Faces*, Mixed media on cement, plaster,
30×20×10cm, 2018
▶ *Heart of the Artist*, Acrylic on FRP, aluminum,
138×138×158cm,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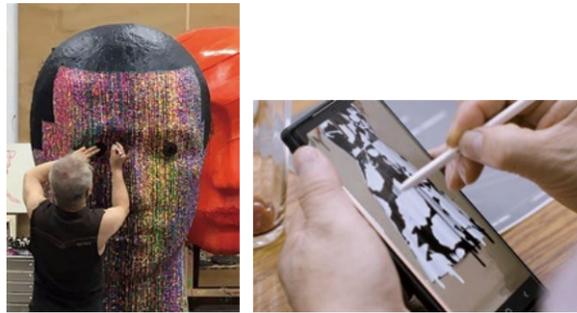
Mask,
Mixed media on FRP,
146×86×44cm, 2017

Blindness,
Synthetic resin, 213×117×110cm each, 2019

Lets flip the page of time from when he were working on his sculpture *Blindness* in 2019, to a year later in 2020. In the summer of 2020, Ahn laid

his eyes on a new medium. A year and half ago from today, Ahn's new challenge began. He kindled a new spark of obsession as an artist with smartphones, the daily necessities of modern people. Smartphone on his palms became his canvas. He appropriated the fashion photographs in the phone by erasing the unnecessary parts with an app, and over the photo he drew what he wanted.

Since summer of 2020, he has made more than 300 digital pen drawings, amongst them 50 were chosen to be printed as the *Ghost Fashion* series for his exhibition this February 2021 held in a gallery in Seoul. Afterwards, for this special exhibition in Ecuador, Ahn showed his prodigious ways of working by completing 20 large oil paintings the size of 162.2×130.3cm over this summer.



Painting on the surface of *Blindness* Digital pen drawing of *Ghost Fashion* with a smartphone

Through the *Ghost Fashion* series, the artist overturns the splendid phenomenon fashion brings to modern times, to completely reinterpret the unique meaning of fashion. Through his works, Ahn delivers the 'human reality' in vain underneath the 'splendor of decoration', which is an aspect of modern civilization.



Ahn Chang-Hong's Solo Exhibition "Ghost Fashion" at Hori Art Space, Seoul, Korea Ahn at work on *Ghost Fashion* series at his studio, summer 2021 *Ghost Fashion* Series, Oil on canvas, 162.2×112.1cm each, 2021

Here I would like to tell you the key points of my presentation today. While Ahn has worked with the subject of human individuals or the sorrows of small communities, with the *Ghost Fashion* series, he shifted his attention towards a new subject, 'critique of human civilization'. It marks a groundbreaking turning point in his 50 years of practice, and opens up a new chapter which marks a great milestone, which is very meaningful to the artist. For the past 50 years, the oeuvre of Ahn Chang-Hong has focused on the sorrows of individuals or small communities within Korea, but now he has entered a new phase of his practice, in which he moves away from individuals to the whole of humanity, critiquing human civilization.

In this huge topic, fashion worked as an 'icon' or a 'medium'. The artist captures and criticizes the reality of excessive consumption, poor personality, and 'vain' inherent in the glamor and splendor. I believe that the 20 oil paintings from the *Ghost Fashion* series which were presented in this special exhibition will last as the turning point in the oeuvre of Ahn where critique of modern human civilization came in.

Here, I would like to briefly look into how Ahn is currently expanding his medium through the *Ghost Fashion* series. What started as a digital pen drawing on a smartphone has been turned into prints and 20 oil paintings, but Ahn does not stop here.

You are seeing the photograph of Ahn's workshop 5 months back. You can see the final stage of the *Ghost Fashion* series which was shown in this special exhibition. Two months from then, 20 paintings were completed which was checked for its final condition at the Savina Museum, and photographed, and have been wrapped and have been put on a truck to be shipped to Ecuador.



Final condition check on *Ghost Fashion* series

Often, when artists put full concentration into completing works of such scale, they are exhausted and in need of a break to mend their mind and body. However, Ahn's spirit does not wish to rest in the body of Ahn, and runs off to expand his artistic medium.

Digital pen drawings of the *Ghost Fashion* series lands in Busan with Ahn's run away spirit. There, the first stage of rebirthing the two-dimensional works of the *Ghost Fashion* to a three-dimensional figure is happening, with a sculpture being built with soil. Of course, it is often the case in contemporary art practice that such stage of making art lends another artist's hand. From digital pen drawings to print, then to 20 oil paintings, then now the work is being turned into a sculpture, which the process of making is currently in progress in this hour where we have all gathered around for this seminar. As you can see, Ahn continues to show a burning desire towards utilizing a new medium, and his hunger towards expansion of medium still burns red.

His attempt at making sculptures of *Ghost Fashion* shows Ahn's creative spirit and his adventurous spirit toward 'exploring' untapped territories. When the sculpture made of FRP will be born out of this plaster mold, Ahn's spirit of painter which I have noted earlier on will be born as a flame on the surface of this sculpture. Therefore, I would like to call him 'the edacious eater of the zeitgeist', and 'an amplifier who has no fear of methods of expression or the use of medium'. Thank you.



Plaster Mold for FRP



3-D in Clay



Digital Drawing on the smartphone

Roundtable Seminar In Conjunction with Ahn Chang-Hong Special Exhibition

**Ahn Chang-Hong, As a Requiem or Homage
to the Unnamed**



Kho Chung-Hwan
Art Critic

In Korea, there was 'Minjung Art' which recognized art as a tool to change the society against the irrational, brutal and suppressive reality, and aimed to change society through art. 'Minjung Art' reached its peak in the 1980s, which later existed in other names such as figurative art, political art, and participatory art. In the midst of the movement, Ahn Chang-Hong was able to take in such ideology of 'Minjung Art', and also succeeded in establishing his own style. While using art as an 'ideological tool', he went beyond making social statements and dug into the depth of ontology, which moved wider audiences and formed a bond of sympath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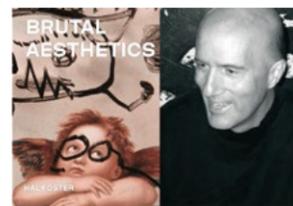
I think this quality is what Guayasamín and Ahn share with each other. In other words, it can be said as 'the compassion for living beings, and anger towards the world', and perhaps anger and compassion is like two sides of a coin as anger is required for compassion to exist. Although the two artists have never met each other, they may have been invisibly linked together as comrades.



◀ Oswaldo Guayasamín, *Anger*, Oil on canvas, 134×95.5cm, 1963-1965
▶ Ahn Chang-Hong, *Scream*, Pencil, ink on paper, 79.5×109.5cm, 1986

◀ Oswaldo Guayasamín, *Mother and Child*, Oil on canvas, 105×176cm, 1982
▶ Ahn Chang-Hong, *A Leper in the Field*, Pencil on paper, 109.5×79.5cm, 1990

Now I would like to look into the artist's oeuvre through his recent works. We will start with the *Ghost Fashion*. People wear clothes to 'protect' their body. That is one of the most basic reasons for wearing clothes. Clothes also work as a 'social code', with various uniforms functioning as such. Then perhaps the most evolved state of wearing clothes is for 'aesthetic' reasons, and now people dress according to their own tastes and styles. Since capitalism emerged, some clothes have become 'objects of desire', and Ahn focuses on such state as the subject of his art. Clothes are displayed in a show window which is lit up at night in the empty city. The artist sees a ghost-like shadow of desire in empty clothes that are lifeless and soulless. Art critic Hal Foster(1955~) saw that "desire, death



Hal Foster(1955~)
『*Brutal Aesthetics*』(2020)

and beauty are one", which can also be said as the three faces of desire. Perhaps *Ghost Fashion* can be seen as a work which connotes the three faces of desire.

The shadow of death shimmers behind the clothes, which is bleeding. Here he depicts a fatally beautiful desire. Prior to working on the oil paintings, Ahn worked with a smartphone to sketch, which evidently shows his interest in the new medium and which also shows another side of him who identifies with the emotions of this er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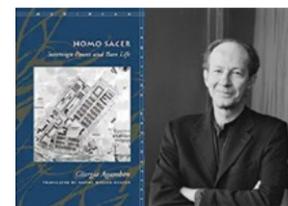
Faces, Mixed media on cement, plaster, 30×20×10cm each, 2018

Sad Evaporation, Oil on canvas, 38×38cm each, 2019

Now I would like to move on to the *Faces* series. Both *Faces* and *Sad Evaporation* series take face as the main subject. While the *Faces* series was delivered in three dimensional figures and sculptures, the *Sad Evaporation* series was delivered as paintings. Therefore, *Faces* series makes satirical and humorous approaches to neighbours, nameless people, ordinary people in a consistent attitude.

Giorgio Agamben(1942~) investigated the concept of 'Homo Sacer' who were in the state of exception from being protected by law. Ahn calls the homeless, victims of the times and history, those driven to a mental hospital due to their political convictions, those who are reduced to mere tools in a certain workplace, and those pushed away from society as 'people without names'.

The title *Sad Evaporation* seems to have derived from the artist's understanding. They are not only without names, but their existence was wiped from history. Ahn gathers this tragic and unfair deaths and offers them a ritual. Initially planned as a series of 49, the number referenc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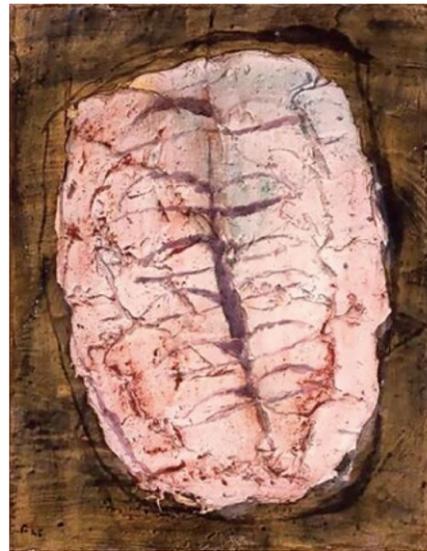


Giorgio Agamben(1942~)
『*Homo Sacer-Sovereign Power and Bare Life*』(1995)

the funeral rituals of 'Mahayana Buddhism' who believe that when people die, they wander the world for 49 days before finally ascending to the sky. The dead portrayed in the series have faces that are unrecognizable, which are either crushed, shattered, and buried underneath. It is as if seeing a mass of crushed matter which are the agonies of death incarnated into cry or silence, which reminds one of Jean Fautrier(1898~1964)'s *Head of a Hostage* series. In real life they may have been the scapegoats and hostages of the times, history, and reality.



Jean Fautrier, *Head of a Hostage No. 1*, Mixed Media on paper, 35x27cm, 1944



Jean Fautrier, *Head of a Hostage No. 14*, Oil on paper, 36x27cm, 1944

Next, let's move on to *Blindness*. Here we have 'the blinds'. The stories speak of people living in this reality. Their eyes are wide open, but they choose to see nothing, so even with eyes they are blind. Therefore, without and without identity, in a way, it could be the stories of ourselves.

You will see blank eyes in *Blindness*, as if the eyes were made of glass beads. Words representing reality principles are either hidden or portrayed on their neck and face, such as 'desire', 'tear', 'resistance', 'survival of the fittest', 'martial arts and warrior'. It represents the self-consciousness in the war-like reality where there is no recognition or emotion but just a desperate wish to survive. 'barcodes' given by the government implements an effective surveillance system, a 'broken wing' which symbolizes repressed and frustrated desire, and possibly a 'date of someone's death' are written and drawn like a

code. Their eyes have a 'keyhole' on one side, which was created by the system to inject ideology. It is a representation of the system which injects ideology and passes them down. Through the *Blindness* series, the artist sees the situations of those who cannot see with their eyes, those without eyes nor identity, and those who are met with death when they let escape their emotions. Through his recent series of *Ghost Fashion, Faces*, and *Blindness*, he denounces the absurd, oppressive and violent reality.



Words and codes painted on *Blindness* (Resistance, Warrior, Tear, Keyhole, Barcodes)

In a way, through the series of *Excrement of an Artist, Hand of the Artist*, and *Heart of the Artist*, he serves as a model for other creative minds in confronting this absurd, oppressive and violent reality. Artist's 'self-consciousness' here can be said to be the driving force that makes art possible, and what allows him to continue practicing art. Thank you.



Excrement of an Artist, Acrylic on fabric, 194x97cm, 1999



Hand of the Artist, Acrylic on FRP, 300x200x45cm, 2019



Heart of the Artist, Acrylic on FRP aluminum, 138x138x150cm, 2019

Roundtable Seminar In Conjunction with Ahn Chang-Hong Special Exhibition

The Powerful Aesthetics Embodied in the Work of Oswaldo Guayasamín and the Significance of the Exhibition of Ahn Chang-Hong in the Guayasamín Museum



Pablo David Guayasamin Monteverde
President of Guayasamín Foundation

First, I would like to thank Lee Myung-Ok, director of the Savina Museum of Contemporary Art, for giving us a chance to present the exhibition of Korean artist Ahn Chang-Hong at the Guayasamín Foundation in Quito.

I would like to quote my father here. "From town to town, from city to city we witnessed the immense misery. Towns of black mud, on black land, with children muddy with black mud, men and women with cold-burned skin, where tears were frozen for centuries until one could not tell if they were made of salt or stone, there only mud and wind exist." Such reality of Latin America was what inspired him to work on *The Age of Rage(La Edad de la Ira)* series. Through these works, he recognized artist as a person who conveys emotions of the people through singing, crying and laughing. That is what Guayasamín did, and also what Korean artists continue to do.

The 20th century may be the most violent era that humanity ever experienced. There was the First World War, the Second World War, concentration camps, nuclear bombs in Hiroshima and Nagasaki. Then in Latin America wars followed in Argentina, Chile, and with dictatorship in Uruguay, life had little value during these times. It inspired Guayasamín to work on *The Age of Rage(La Edad de la Ira)* series. When he won a prize at the Barcelona Biennale in 1963, with his prize money he traveled across Spain, and witnessed many Spanish women in black clothes. He witnessed the mourning of many families in Spain, and saw women going through endless sacrifice. To convey how tears of Spanish women were repeated throughout seven days a week, he delivered a total of 7 paintings. It embedded his resistance against the Spanish Civil War.



Head of the Mountain,
Oil on canvas, 95×134cm, 1974



The Insurgent, Acrylic on canvas,
135×95cm, 1963-1965



Women Crying, Oil on canvas, 145×75cm, 1963-1965

Then he worked with the subject of faces, by depicting the heads of Jews, Napalm-struck victims, guerillas, black kids, and mothers, which showed fear, cry and rage. These faces resemble Ahn's works in the *Blindness* series. *Blindness* is a great series of sculptures of heads filled with pain and agony, and delivers the message about living in the present. Continuing his practice, Guayasamín delivers a series titled *The Hands(Las Manos)*, which is now on display alongside the *Blindness* series in this exhibition. The series includes the hands of fear, hands of silence, hands of greed, hands of poor, hands of prayer, hands of tender heart, and lastly, hands of resistance.



Ahn Chang-Hong's *Blindness* installed
with Oswaldo Guayasamín's *The Hands*
at The Chapel of Man



The Hands,
Oil on canvas, 640×1024cm, 1968

He delivered the impressions of concentration camps in 11 works. Berta Taracena, an art critic from Mexico referred Guayasamín as a kinetic expressionist; first Guayasamín captures the face in a way he would take a close-up shot with a camera, then would zoom out to capture the full body which is only skin and bones, which also resembles the trajectory of

the works of Ahn. One artist comes from Asia, across from the Pacific, and the other comes from our wounded land of Latin America, but I can say that these two artists are strikingly similar.

Guayasamín also depicted Vietnam, which is the most bombed country in history, and the Napalm, a weapon which burns human skin with chemicals and acid in the same context. He then painted the Rivers of Blood (Rios de Sangre) which reflected the reality of Latin America. The work showed people getting shot and whipped whose images resembled the icon of Jesus which Guayasamín carried. Dead bodies were witnessed floating down through the Mapocho River which crosses Santiago in Chile, whom all had evident traces of violence.



Rivers of Blood,
Oil on canvas, 137×188cm, 1976



Napalm Head,
Oil on canvas, 122×122cm, 1976

This was the reality which Guayasamín lived through, which was why he strived to find a place where people could live in a spirit of resistance while respecting one another. It would be a place where people would not be exploited or attacked due to their low status, being poor, or being illiterate. It is the message which coincides with that of Ahn's. They are like twin brothers. One lives outside Latin America, and the other lives in a different reality. Therefore, it is very important for us to project this exhibition out through various media.

Moreover, in the act of voicing out against such injustice within the society, there should be no walls between the nations. Guayasamín was a champion who broke down such barriers and strived to achieve human equality. One should not be defined by one's wealth, but one's intelligence and ability to reason should be valued. Here on earth, the builders who

build our home are equally important. If we did not have carpenters or the stonemasons, we would have lived in caves. Also, shoemakers who allow us to walk in shoes and not barefoot, or the baker who fills our hunger every day is equally important too. It is the same with doctors, theorists, or the politicians. Artists too are fundamentally important. It is because they are the makers of art, and as I have mentioned earlier, it is because they deliver people's feelings in singing, laughing, and crying ways, which is very important.

I have not come to discuss the aesthetic matters of artworks today. I have come to share what master Oswaldo Guayasamín aimed to deliver through his works, just as Ahn delivered through his works in Quito. In 2009, Guayasamín was named as Ibero-America's painter in a Presidential Summit held in Havana. Presidents from Portugal, Spain and Latin America have all declared Guayasamín as the Ibero-America's painter. I believe that Ahn should receive the praise as an artist of humanity or the artist of Asia. Ladies and gentleman,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time here today.

한국·에콰도르 수교 60주년 기념 안창홍 특별초대전 세미나

안창홍과 오스왈도 과야사민의 작품세계를 통해 본 한국과 에콰도르의 시대정신

주최 문화체육관광부	기획 총괄 이명옥	번역 성지연 이나리
주관 사비나미술관 (사)한국사립미술관협회	책임 큐레이터 강재현 파블로 과야사민 베레니세 과야사민	검수 임성연
후원 대한민국 외교부	전시 진행 사비나미술관 학예연구실 과야사민재단 학예팀	인쇄 KC기획
협력 주 에콰도르 대한민국 대사관 에콰도르 외교부 주한 에콰도르 대사관 과야사민재단 과야사민미술관	세미나 발제문 문범강, 고충환, 파블로 과야사민	발행처 사비나미술관
협찬 SAMSUNG ELECTRONICS LATINOAMÉRICA	디자인 배지선	발행인 이명옥

본 작품집에 실린 글과 도판은 사비나미술관과 과야사민재단의 동의 없이 무단전재 및 복제할 수 없습니다.

Roundtable Seminar In Conjunction with 〈Ahn Chang-Hong Special Exhibition〉 at the Guayasamin Foundation in Celebration of the 60th Anniversary of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Korea and Ecuador

The Spirit of the Times of Ecuador and Korea through the Artwork of Ahn Chang-Hong & Oswaldo Guayasamín

HOST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of Korea	DIRECTOR Lee Myung-Ok	TRANSLATION Seong Ji Yeon Lee Na Ri
ORGANIZATION Savina Museum of Contemporary Art The Korean Art Museum Association	CHIEF CURATOR Kang Jae Hyun Pablo David Guayasamín Monteverde Verenice Guayasamín Monteverde	ENGLISH EDITING Sungyoum Lim
SPONSOR Ministry of Foreign Affairs, Republic of Korea	EXHIBITION ADMINISTRATION Savina Museum of Contemporary Art, Curatorial Team Guayasamín Foundation, Curatorial Team	PRINTING KC Communications
COOPERATION Embassy of the Republic of Korea in Ecuador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Human Mobility, Republic of Ecuador Embassy of the Republic of Ecuador in Korea Guayasamín Foundation Guayasamín Museum	SEMINAR PANELISTS BG Muhn Kho Chung-Hwan Pablo David Guayasamín Monteverde	PUBLISH Savina Museum of Contemporary Art
CORPORATE SPONSORSHIP SAMSUNG ELECTRONICS LATINOAMÉRICA	DESIGN Bae Jee Sun	PUBLISHER Lee Myung-Ok

All rights reserved.
No part of the book may be reproduced or utilized in any manner without permission from the Savina Museum of Contemporary Art and the Guayasamín Foundation.

